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電話 本局 二一二五六番 振替口座 京城四〇九九番
編輯兼發行人 金容熙
印刷人 金邦

獨逸과聯盟側

平和與否가賠償問題에在함

四個年의長期間을繼續하야幾千萬의頭顱를抛擲하고幾百億의財力을糜費하야上天과下地에殺氣가朦朦하고砲聲이轟轟케하든歐洲大戰에直接으로戰鬪員이되야彊域에鞅掌하든獨墺英佛露土美利等諸國과陣後에追隨하며殘盃冷炙的의利潤이나獲得할가하야搖旗吶喊하든巾日希勃等諸國은姑히勿論하고그戰局周圍에立하야壁上觀을作하든諸國家諸民族々지라도모다戰亂을愁苦하고平和를渴望하야天下는惡平定이支離한心理를滿抱케하든바天이禍를悔함인지人이亂을厭함인지또는各自의事勢가無可奈何함인지結局獨墺의大讓步로戰爭은終熄하엿고美統領의提出한案件으로平和의條項을見하건된民族自決非併土非賠償等條件이內中에包含되얏고그를提出할當時에列國이다갓치唯々承認하는贊意를表하엿슴은事實인同時에吾人은想像하기를이人間에魔鬼의世上이안인즉兩者의主張하는是非도彼此가無하고剩得한利害도得失이無한境遇에人心의疲弊함이若此하니過去禍亂은夢境浩劫으로認定하고相互間襟度를披露하며事機를諒解하야平々和々한國交가恢復되고辛々苦々하든民族이更生하리라하엿더니亂離의窟宅이요平和의舞臺인歐洲消息을日로接하고時로聞하건된衝突하든恐怖劇을그리도餘戀이有한지紛爭하는根底를廓淸하지못하고午後漫興的으로條約上差別的主張과金錢上過多的要求는갈사록苛極酷極하야眞正한平和는何時에나實現할지前期가渺然하야五里霧中에獨樹殘花를見함보다도憲徹朦朧한狀態이니世界를爲하야民族을爲하야實로寒心함을已치못하겟도다

民族自決主義로言할지라도或者는強辯으로曲解하되歐洲에限定함이요其他는不論이라하니그辯解를그런세음으로認定할진된歐洲에서는이主義를徹底히實行함이可할듯한되捷克波蘭等小民族이그主義의恩惠를沐浴한者도有하지만은『시리시아』의獨逸에歸附함을佛蘭西에서무슨理由로沮戱하며獨墺의併合을聯合側에서무슨條件으로妨害하는가此等의鬼胎를包含한政略이許多하나時間과紙面이不許함으로煩言은姑休하고此間에는單純히賠償問題를論하야公心을具有한者의評判에任코저하노라休戰한以後에今日々지오도록同盟側과聯合側에서到底히爭執하는그條件을見하건된무엇보다도賠償問題뭇말하면金錢關係가第一重要한部分을占領하야會議를重複하고交涉을頻煩하야戰敗者인獨逸로하여금堪耐치못하도록承當치못하도록金額을賦課하고그要求를貫徹할手段으로何地方의所在한森林과炭鑛을占領한다또는工場을管理한다威脅하야所謂平和라는國交가一毫의融洽한氣象이無하고그鮮鷸의相持하는勢를譬喩하면無賴한市井牟利輩의高利貸金業者가靡室靡家하고流離飄泊하는身世로粒米分錢의變通에無한債務者를逢着하면詬罵하고그도不足하야手脚을亂使함과類似하니不幸히償之한所以로聯國債金을負함이有함은勿論이나債權者의排償手段으로論하면過酷하지안이한가獨佛의關係로論하면單純한債務債權의正當한關係하도안이라할지나或獨逸로하여금平和的으로妥協的으로雙方의意思가合致되야內國經濟를潤澤할目的으로或은商工業을振興할計劃으로든지借用한欵項이라할지라도그報償할期限에頭를斬하고脚을折할지라도報償할能力이無함에야百個佛蘭西이며將且彼를奈何오他道가無히그를豁免하거나그럿치안이하면그實力의回復하기나好待期望할外에好法이無할터인더다갓혼野心과다갓혼强力으로한번抗爭하다가兩方이다갓치心衰力疲하야形式上勝敗가判定되얏스나實地에는無勝無負인形便이니다갓치過誤된擧措를悔悟하고交誼를更敦함이可하거늘聯合側의爲政者는此를不爲하고必爭必得할氣勢를示하나結局所要하는目的도到達치못하고惡感만一層增大케하며窮迫한獨逸을더욱窮迫하게하야金融界에는馬克이價格을維持치못하고工業界에는罷業이續出케하야七千萬의獨逸民族으로하여금個々히寧欲無生의心理를抱하는同時에最後解決으로赤露와共鳴코져하는兆候々지現露케하니聯合側에서는스사로認定호딕此가賢明한政策이라할는가不知케라吾는恐컨된窮寇를追하면反噬하는害가必有할가하노라그러면이賠償問題를免除或輕減하야圓滿한解決을得한後가안이면目今歐洲局面에完全한平和를見치못하리라하노니聯合側諸國은胸懷를平坦히하야牟利的野欲을抛棄하고人道的義擧에出할것이라하노라

外高加索의三國觀 (二)

一八九三年으로一八九六年에至하는間에美亞尼亞의人이革命嫌疑로誅戮을遭함이三十萬人에達한다하고歐洲大戰이發生한後에는土耳其政府가露西亞를幫助하엿다하는嫌疑로亞美尼亞人에慘殺를大肆하야死亡이八十萬人에至하엿다하니이것도人類의稀有한浩劫이라謂치안이치못할지라

大戰이發生한後로歐美各國에流離竄謫하엿던亞美尼亞人은所在에頭를擡하고力을協하야獨立을運動하니協商各國에極端으로贊援을均予하는데米國의當時大總統威爾遜氏가最히備盡하엿다하는것이라

二、彊域 亞美尼亞共和國의面積은目下占領한土地로論하면二萬六千一百三十方哩에過함이업스나原版圖에載한『싼』(梵)『비트리스』(比德里斯)『어세럼』(歐札隆)『추레비손드』(德里比霜)等諸州의一部를並包하면全面積이八萬方哩에達함이니威爾遜氏의民族自決上原則을根據하야劃定한彊域은此新亞美尼亞共和國에當然히包含될바이니大略이下와如하니라

一、露西亞에前屬하엿던諸州
이리싼(伊里梵)
카ー스(喀爾斯)
어세럼(歐札隆)
추레비손드(德里比霜)

二、土耳其에前屬하엿던諸州
싼(梵)北部
세트리스(比德里斯)東北部

共計面積이六八四九一方哩

右에依하면亞美尼亞新興國의四標는北으로黑海와喬治亞共和國을界하고東으로阿才倍彊을接하고西으로土耳其를隣하고東으로波斯와對하야全境이一大高原이라海拔一千呎으로七千呎에乃至하는中에『아라라트』(河拉拉德)山은高가一萬七千呎이되는데『유프라데스』(幼發拉底)河의支流는그南境에灌輸하며『쿠라드』(模臘特)河는流域이尤大하야灌漑의利도多賴하고其外에도『아라스』(阿拉斯)河와如한大流가東으로裡海에注入하며南에는『싼』(梵)湖東에는『곡하』(谷雀)湖가잇는데氣候는甚寒하고國都는『이리반』이니前日露西亞에屬하엿던『이리반』首府라人口가九萬이오此外大城은『어세럼』『반』城『아락센드로풀』(亞歷山得魯波爾)『세르리스』(比德里斯)가잇는데『류레비손드』(德里比霜)는黑海에屬한一大通商港이러라

朝鮮古今人物 (三一)

明德太后 (二)

二十二年에王이禑로써世子를삼고자하야就學하기를請하고成均直講李崇仁을命하야書를授하게하고자하니后가不欲하야托辭曰兒가尙히幻한지라稍長한後에學에就하게하야도晩하지아니하도다하니王曰臣이今에數가窮하야맛당히死할지라立嗣하지안이하면社稷을誰에게托하며또影殿의役은誰가吾志를繼하리잇가하거날后曰影殿의壯麗함은天下에無比라民를勞하고財를傷함이莫甚하야水旱災變이此에由하지안이하는者가無하니맛당히其役를罷할지니라하고又曰人臣이出하야는王事에從하고入하야는家産을治하거날今에金興慶等모든子弟가日夜로內에在하야歸家함을不得하니엇지王을怨望하지안이하리잇가王이嘗히賊昐을偏信하고予의言을聽하지안이하야幾히誤國에至하더니今에또엇지若此하나뇨맛당히子弟로하야곰輪次宿衛하게할지니다또萬機가至極히煩多하야宵旰으로政事에勤하야도오히려不及할가懼할지어날今에王이日中에始起하니軍國의務가엇지稽滯하는것이無하리오王은맛당히夙興夜寐하고親히國政을聞하야老母에게孝하라하니王이不悅하야辭去하고자하거날后가再三次言하니王이對曰謹히命을從하리이다하더라后가또王다려問하야曰王은엇지妃嬪을御하지안이하나뇨한더王이曰公主와如한者가無하나이이다하고因하야泣下하거날后가笑曰一死는常理라王도또한免하지못할지니무엇을如此히慟하기를甚히하는뇨人의所笑가될가恐하노니愼히그러하지말지어다하더라后가王의過失을累言하야王이不悅하니宮人宦官輩가相戒하야王의過失을后에게言하지안이하니后도또한그러함을知하더니맛王이忠惠王孽子를殺함을聞한後에佯若不知하고稱托하야曰昨日夢中에死屍를見하야心이不平하다하고膳夫로하야곰素饌을備進하게하다禑가即位한後五年에乳媼張氏가罪가有함의下獄하기를請하니禑가人으로하야곰后에게問하야曰古者에또한乳母를出한者가有하나잇가하거날后曰엇지古今의有無로써論할고다만時制의맛당함을取할지라하얏더니百官이固請하되禑가聽하지안이하니后曰엇지一女의緣故로써擧國으로하야곰缺望하게할고하고張氏를召하야急히下獄하게한더張氏가禑의前에在하야不出하거날后가怒하야別宮으로幸하고자하니禑가由是로不得已히張氏를出하다六年正月戊戌에薨하니壽가八十三이라그前日夕에禑의手를執하고曰我國이傳世하기已久하야將次五百年이라大抵人君이臣僚의言을聽하지안이하나니願하건더王은大疑를稽하고大事를決할時에반다시諸相에게諮問하야徑直히行하지말며또君上의擧動은史官이必書하나니可히數々히遊畋하지말지어다하더라二月에令陵에葬하고諡曰恭元이라하다

歐米各國의社會運動 (八八)

獨逸

一八七一年에 戰爭의高熱이冷靜될時를當하야 社會主義의烽火熱風은更히吹動을開始하얏는더 時代의激變과 產業의恐慌은彼等의運動力에翼을添하고 附하야 增進의氣運을助成하야 一八七四年의選擧에서는 社會黨의投票가三十四萬의多數가되얏고 九人의議員을選出하얏섯다

一八六二年、最初『라스사레』가活舞臺에現身할時로븟허 彼等이그煽動的運動中에서 恒常獨逸聯祭과 反抗의旗를擧하얏는더 이로因하야 그首領等은獄中에身을投하고 集會는破壞되고 新聞과團體와는 禁止되고 壇上에서自由의演說도、印刷者의手를經하는더及하야 常히省略하지안이하면안이되얏나니 此와如한經驗은社會主義者領袖로써 共通의敵에對하야 團結의利益과必要를痛知하게하얏다

『라스사레』黨의首領 『시유와이스아』가 一八七一年에隱退한後는 此結合에對하야 가장有力한障碍物이遠去하엿섯나니 大槪『라스사레』黨과『아이세나스하』黨과의黨派로써不和할뿐이안이라 그兩黨의首領인『시유와이스아』와『리부구네히도』의爭鬪는 眞實로醜劣한模樣을呈하야 社會黨會에『리부구네히도』는『시유와이스아』를呼하야 普魯西政府의先導라코하고『시유와이스아』는『리부구네히도』를稱하야 墺太利의偵探이라고하얏다 故로그一便에서此보다先히『하ー세ㄴ구레후에르』가『시유와이스아』를代하야『라스사레』의首領으로被選되얏다 그리한더、此黨派는旣히大端히專制的指導의下風에잇섯는지라 當時에모든傾向과形勢는 모다『라스사레』黨과『아이세나스하』黨과를合同식히는案內가되야서 彼等은同一한境遇에處하야 同一한對敵을當하야 同一한目的으로進行하고자함이라 彼等은已爲한競爭의怨簿恨記를 記憶外에任置하고 分立하지안이하도록 共鬪하얏다 此兩派를結合히는 門戶가廣開하얏다할지로다

社會主義勞働黨

兩黨의合同은 容易하게順成하야 一八七五年에『고다』大會에서 兩黨이融和한精神으로和親의手를握하기를實行하얏는더 此大會에二萬五千의黨員이出席한中 九千人은『하스』의黨이오 一萬五千人은『라스사레』의黨이라 此合同團體를獨逸社會主義勞働黨이라고稱하고 新히一綱領을規定하얏다

(一)勞働은모든富와文明과의根源이라 그러한더大槪生產的勞働은 다만社會中에서 社會에依하야 行함을得할뿐이어서 勞働의全生產은即社會에그全員에게屬함 또 全體가一般으로勞働義務를 負擔한故로그生產에對하야 各人이正當한必要에應하야平等의權利가有함

『現在社會는 勞働의機關이모다資本家階級의獨占으로歸하니 그結果인勞働階級의 無獨立은 所謂形式이 悲慘과屈辱과의原因이됨』

貞信女學校의盟休와其眞狀 (二)

金瓚根

廣濶한마당은體操와庭球하기에適當하다 空氣가淸潔하니氣血이活潑하고 運動이適當하니身體가强健하다 生徒들이休息하는時間에或遊戲도하며或唱歌도하며或風琴도彈하니其聲이淸雅瀏亮하야참天上에樂國이안이면곳人間에仙境이로다 그러나生徒들을그더로任放하고防閑이업스면血氣未定한時에軟弱한마음이맛치물과갓하여東으로決하면東으로流하고西으로決하면西으로流하기易하야工夫에도妨害가되고前程에도障碍가된다 그럼으로此點에對하야學校에서製定한規則이잇다

三、生徒의外出、書信、面會、

生徒의外出은每月曜下午一時부터四五時々지外出을許하야自由로親族과朋友를尋訪케하며特히一個月一次式은엇던土曜에던지親戚의家에外泊하고月曜日上學前으로登校케하며

書信往復은自己父兄이나또는保證人의承諾을엇은後에自由로하며또學校에서書信을檢閱하던規則은昨秋부터廢止하엿다

生徒의面會는每週土曜로定하고父母와兄弟와親戚과朋友가來할時에는依例히面會함은勿論이오만일遠地에居하는學父兄이來臨하면制定한時間外에特別面會가엇스며萬一生面의靑年男子가無聊히面會를來請할時에는其理由와蹤跡을詳細히안일수업는것입다

普天下父母들은勿論하고子女를敎育할時에其貴愛한마암은못지안코一般일다 眼前에金과갓치사랑하고掌上에珠와갓치貴重하던女子를하로아참에써듯한父母의품을써나서千里나三百里나五百里나千餘里밧게보낼써에비록敎育의義務가重하고向學의至誠이熱하나그마암에操心스러움이엇지어더하리요마는혹히나江가에보낸것갓치마음을못놋것이다 그러나이와갓치疑心업시보닝는것은學校에서自己와갓치保護할줄을確實이밋는것일다 生徒들에게잇는責任을맛는學校當局者들은生徒들이或宿食에不便함이잇슬가或出入에無禮함을範함이잇슬가자나세나恒常念慮함에지음에서學父兄들에게일나勞心하는것보다더함은잇을것이다 事實일다그럼으로더구나遠近을勿論하고出入할時에恒常操心하되或不知中不幸에써질가念慮함이오決코生徒들의自由를禁鋼함은아니다 年來로生徒들의觀覽함을槪言하면各書畵展覽會、品評會、新聞社、京城郵便局、朝鮮銀行、龍山印刷所等와京城各名所等을隨時見學하야聞見을廣開케하며修學旅行으로말하면開城(三四次)、水原(二三次)、仁川港、江華島、水源地、安邊釋王寺、始興一幕寺、公州雞龍山、甲寺、新元寺、公州等名所를縱覽하야歷史上古跡을實地로觀覽케하니그靈性慧衿이閨房規矩밧게超出하야能히司馬子長의南遊江淮의遺事를同笑할만하며足히五百年閨中禁錮에서불상히죽은哀魂冤恨을慰答할만하고 金剛山의勝景을次第로觀覽할豫定이로다 그러나新聞과雜誌에는此等形便은諒解치안코責望또는辱說서지하는것은誤解인줄로思惟하노라 웨그러냐하면生徒의面目이나져우안다고公然히남의女生徒의게無聊히面會를請하는靑年 또는路上에서女生의去路를遮斷하며悖說과戱謔을恣하는靑年 電車內에서一女生의게三四人이環立하야注目嘲弄하는靑年(此等事는種々目睹하는것)此等敗風惡俗이自由社會에서出來하얏습닛가文明社會에서出來하엿습닛가만일社會에서此를無關타하면이는悖風을奬勵함이오此를奬勵하면第二家政의朽敗할것과第二社會의論喪할것은닉가죽은후에보지안코도미리알것이로다

헬만과도로데아 (七四)

梁夏葉 譯

이러다가라도或時이런일은잇슬것이지요 달은것이아니라 即ㅣ그ㅣ사람이 生覺지도안이한말을 主人되는 사람이써ㅣ가지고 責하며 잘못하얏다 할것이요! 만약이러한일이 잇다고하여도 亦是관계치안은일이외다 아모것도울으는 主人집마누라가 이것은잘하얏는이 이것은못하얏는이하고 야단치는일이라든가 아모철업시뒤떠드는 어리인兒孩들의 作難가튼것은 누구든지참고 견티기가어려울것이외다 그러나 이러한것서지도 다ㅣ참아가야합니다! 기닷게말우엇이러니저리니하고 할것업시 남들은날너러무어라하든지 그말하는것을相關말고서 오직나의맛흔일만 忠實히하여갈것갓트면 아모일도업술것이외다 그러나져ㅣ어른에서只今 이女子가너마암에든다고하시고 별안간당신은어 몰어서지부는것을보닝가 이 오히려져ㅣ어른에게 몰어서지도당신은어ㅣ世上의人間苦란것을몰은이오 또한奉仕者의心理란것을모르는것갓소이다 져ㅣ어른에서하신弄談으로말하면普通으로누구나다하ㅣ는弄談인데 그말을듯고 女姓어란것서지 참으로맛을식히게된다는것아지는 表 또당신의履歷어라든가 經歷이라는것이업는것을 어ㅣ世上에드러니 는것갓치 는生覺이됨니다

稗山玉

第八十四回 긔쳔에셔룡이나! 과연평죠가셔질가? 碧霞 〔七〕

이에셔 남영우는 지금에뎌호가하는말이 무슨말인지 똑똑히알지못하얏다 무슨일로 말미암아 자긔아들어 뎌호를차자오는지 짐작이젼혀업섯다

그러치만 지금에자긔가 뎌호에게로부터 온당치못한일을하야쥬고 그일에대한상금을 바드려하는이셔에 자긔의친아들……뎌구나 비루한일을 실혀하는결벽(潔白)한성질에뎌하야는 항상자긔의힝동을 죠심하고지닉는뎌인데 별안간에 이러한마당에룡오는것은 참으로챵피한일이엿다그리하야 남영우는 얼굴에는나타니지아니하얏스나 자긔의속으로는무한히의물셧다

지금에 자긔아들어 드러오기젼에 쌜리져ㅣ소졀수를 줄것은주고 쳬울것은어셔쳬여바렷스연하는더리운욕심욕성각을 하얏지만 윤뎌호는오직얼골에홍분이된빗을 씌우고 소졀수통장을쳬울성각은 조금도아니하는모양이엿다

그리하야지금에 져ㅣ「테이블」우에노힌소졀수의쑨돈이 자긔와황력성의죄를 력々히말하는듯하야 남영우는혼자 속으로의붓쓰고잇술섕이엿다

「뎌관결 너의아들이 태호씨를차자뵈오러왓다는말삼이시지오 그러면 뎌호씨가 너아들을본뎌브터아심닛가? 쏘는무슨일로희셔왓슬가요?」

하며 남영우는 궁금함을참지못하야 무러보앗다

「아니올시다 너가본러부터 남영우씨의아드님과 아는셔이아니지요만은 나와엇더한관세가잇는것은 조곰만잇스면 자셰히아실수가잇슴니다 그러나그일은 곳이번혼인에뎌한일임니다만은 중뎌한상금을 달나고온것은 아닌것이확실함니다하……」

라고 태호는허리가 부러지도록큰목소리로우섯다그러치만그우슴이아직아지곤치지아니한이셔에 방문이 스르々열니며 서ㅅ파러헤질넌얼골에 살긔가등등한 정완이가 드러왓다

이에셔웃는뎌호는 정완이가드러옴을보고 급히우숨을 뚝ㅣ쓰쳐엿다 지금에 져!살긔가등등한정완의무셔운모양은 거만한운태호의마음을 날카라운송곳갓흐로 쭉ㅣ씌르는것과갓치 정신이앗득케하얏슬것은 틀님업섯다

그러치만 뎌호는 조금도그리한빗을 나타니지아니하고 도리혀 자긔는승젼고를 울니는장수이다하는성각을가지고 이러케말하얏다

「야ㅣ당신이시오! 젼일에는터단실례한일이만소이다 자ㅣ이리로오시지오 쏘는맛침춘부장씨셔도와셔게시오」

하며 것흐로는 미우점잔케정완이를디졉하얏다

이에셔에 정완은 엽울쭉ㅣ담을고아모말도업시 가시눈을 하며가지고 뎌호를 노리혀볼섕이엿다 쏘는자긔아바지를 될수잇는터로 마주보지아니하라고 모루안져셔 뎌호만 눈독을되려바라볼섕이엿다

「그런데 지금에당신씨셔 나의집을 일부러차자온일은 엇더한일인지는모르겟스나 하여간공교히 어린거회가 됴흔셔에잘오섯소 그러나편일에그처럼울시모욕을 하든에몬만아는사람의집을 엇지할수업시일부러차자오지아니치못할일이셩긴것맛소이다 하……」

하며 테호는정완과셔로 마주바라보고안져셔 비모소쳐올자흠의총알을보내엿다

지금에정완은 태호의말에뎌하야 무엇이라고곳말을 하라하얏스나 정완은분긔를참지못하야입살이 벌벌떨닐섕이오 아모말도입밧그로나오지못하얏다

「그런데 무슨일로희셔 속에누런똥만돈사람을 차져오시엿소?」

하며 뎌호는비웃는소리로 뮈들이어물엇다 그럿치만 정완은가삼이날뛰어는분한마음을 엇더케말하면 조흘지몰나셔 잠시동안은 두주목을 부르고셜연셔터호를 눈흘겨보다가 입을여러날가라운목소리로말하얏다

「당신은 사람의량심을 가지엿소?」

「내ㅣ사람의량심!」

라고윤뎌호는 못다시무릿스나 지금에아모말이업시잇다가 별안간웃는고로 잠시동안은 무엇이라고터답하야만될지 몰노는모양이엿다

「그럿소 사람의량심을말한것이오 보통사람께겟향하야 이와갓치 그터가사람의량심을가지엿느냐 무물필요가업지만은사람의섭질은뒤집어써지만은사람으로셔는하지아니하는일을힝하는우리에게향하야는너도사람의량심을가지엿느냐 무를필요가꼭ㅣ잇소이다 그런데당신도사람의량심을 가지엿는지 졈암고자하는바이오」

라고정완의못는말은 렬々하얏다

開放欄 投稿歡迎

個人의完成과社會組織

永同 張喆

(一)머리말

現代人의熱烈眞摯한要求는人格의解放이다男이나女나父나子나無産者나有産者나愚者나智者나文明人이나野蠻人이나何者를勿論하고總人格體임을是認하라는것이다우리는우리의自身이長久한時間을自己의生活을못하고고든不自然不自由下의奴隸的境遇에서버셔나일허버린人格을徹底히차즈려하는現代人이다우리네의個々가畜生이아니라人間인以上人된價値를獲得하라는것은어나哲學으로도否定할수업는眞理디이眞理를抗拒할者누구며不道德이라할者누구이랴

(二)本 論

人類의生活에는二個의方面이有하니一은自然的本能的要求에基한慾望價値의滿足追求오他의一은理性的自由意思的要求에基한理想價値를意識하는生活이다何故로人類가此兩個價値意識이有하며또엇지하야慾望價値뿐만으로써人類生活의全般을說明키不能하냐?換言하면何故로人類生活의行程을唯物的으로說明하는以外에目的論的解釋을不下하면아니되느냐하는問題는此處에셔容易히論斷할問題는아니다그러나普通前者의生活을肉體的生命이라云하고後者의生活을精神的即人格的生命이라고한다그러면肉體와人格은分離한存在냐하면勿論그러한것은아니다精神的生活과肉……

各地報道

安洪兩人의敎育熱

面長會議事項

度量衡器檢査

時草公校落成式

慶北의指定面

水害救濟同情金

禁酒斷煙會創立

長鬐間航路開始

勸光青年會創立

全北敎員合格者

新築郡廳落成式

女子普校落札

生活改善協議

大同商會復興

青年會臨時總會

夜警團組織

道事務官動靜

辭令塔